

개원 50일만에 ‘수도권 서남부 의료허브’ 안착

700여 병상에 30개 진료과 운영
복잡한 진료 행정 ‘원스톱서비스’
3월 7000여명...4월 17000명 돌파
이철희 병원장 “최고의 의료 제공”



3월2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중앙대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수도권 서남부의 허브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연착륙하고 있다. 중앙대광명병원은 개원 50여일 만에 하루 외래환자 1000명을 넘었다. 신생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원 준비와 진료를 개시했지만, 빠르게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있다.

●외래환자 3월 7148명→4월 1만7237명

중앙대광명병원은 광명시 최초의 대학병원이다. 출범 당시부터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의료체계를 이끌 허브 진료기관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상 14층, 지하 8층에 700여 병상을 갖추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최신 진료시스템, 암, 심장뇌혈관, 소화기, 호흡기알레르기, 척추, 관절 등으로 이루어진 6개 중증전문클러스터와 30개의 진료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3월 진료 시작 때 7148명이던 월별 외래환자는 4월에는 1만7237명으로 늘어났다. 5월에는 9일까지 벌써 4466명을 기록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원 초 하루 외래환자는 800명 대였으나, 개원 후 50일이 지난



지상 14층, 지하 8층에 700여 병상을 갖춘 광명시의 첫 대학병원인 중앙대광명병원의 로비와 전경(왼쪽 작은 사진).

사진제공 | 중앙대광명병원

9일에는 하루 1021명으로 1000명을 넘었다.

이렇게 외래환자가 늘어난 데는 3월 진료 개시 때부터 적극 도입한 환자 중심의 프로세스가 큰 역할을 했다. 중앙대광명병원은 1000개 이상의 복잡한 진료 및 업무프로세스를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입장에서 전면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다학제 협진과 원무팀, 진료협력팀, 사회사회협담을 하나로 묶은 진료행정실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약, 입퇴원, 전원, 회소, 복지기관 연계 등의 주요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환자가 더 이상 여러 부서를 돌아다닐 필요없이 한 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실을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유니버설 외래를 도입해 진료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밖에 병동 양측 측면에 병원 건물 최초로 피난 발코니 시스템을 설치하고 투약환자 확인

시스템, 중앙 모니터링 환자 감시장치, 채혈 자동 라벨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을 들였다.

현재 중앙대광명병원은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조기 투입할 수도 있지만,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사전 교육 등 제반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병동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협력체계 구축

병원이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료와 의료기관간의 협력체계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중앙대광명병원은 광명시를 비롯한 주 진료구역 시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암과 심혈관 중증질환이 많고 환자의 85%가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암, 심장뇌혈관, 소화기, 호흡기알레르기, 척추, 관절을 주요 진료분야로 선정했다. 암이 의

심될 경우 조직검사 결과부터 입원 및 수술까지 1주일 안팎에 끝낼 수 있는 의료진과 진료시스템을 갖췄다.

최근에는 소화병원, 보바스기념병원, 화홍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시가 구축한 의료복합클러스터의 헬스케어, 의료기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기업과도 유기적인 산학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철희 중앙대광명병원 병원장은 “환자분들의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더욱 더 성장할 것이며, 아직 미비한 점이 많지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광명병원은 감염병 방역관리를 준수하는 가운데 6월 말에 공식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스포츠동아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15



명지병원의 간 집중치료실(LICU) 개소식. 사진제공 | 명지병원

명지병원, 간 집중치료실 LICU 개소

명지병원은 17일 간 질환자들의 서비스 중환자실 역할을 담당하는 간 집중치료실(LICU)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LICU는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며 급성 악화 증상이 예견되는 간경변 및 간부전 환자와 합병증이 예견되는 간 세포암 환자를 24시간 집중 치료, 관리하는 서브중환자실이다. 4개 병상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 컨트롤하는 모니터와 24시간 환자 체중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환자실을 침대를 갖추었다. 명지병원은 2015년 소화기내과 이효석 교수를 비롯한 간암 및 간 질환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 간אי시 25회 등 경기북서부 지역 간 질환 치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한편 명지병원은 27일 LICU 및 진행성 간암센터 개소 기념 온라인 임상 심포지엄을 열고 진행성 간암의 최신 치료 방법 등을 소개한다.

365mc, ‘엄마의 숫자는 거꾸로 간다’ 캠페인

365mc네트웍스는 시니어 패션 에이전시 더뉴그레이와 ‘#Mom’s number(엄마의 숫자)’ 캠페인을 공동 진행한다. 캠페인은 40대 이후 여성들의 자신감 회복과 비만 치료를 위해 기획했다. 캠페인에 선정되면 4~8주 비만치료 프로그램과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촬영, 스타일링 의류, 365mc 시니어 모델 기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0일까지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비만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40세 이상 어머니다.

광동제약 ‘제주 플로깅 캠페인’ 참가자 모집



광동제약은 제주올레와 함께 제주 환경정화를 위한 청년 플로깅 캠페인 ‘주스명, 도르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스명, 도르명’은 ‘주우며, 달리며’라는 제주 사투리로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의 의미를 재치있게 담았다. 행사는 6월3일부터 2박3일 동안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서 열린다. 제주도 거주 19~34세대 20일까지 제주올레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절기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장기간 방치 땀 축농증 등 합병증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환절기마다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알레르기 질환이란 특정 항원에 노출되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항원이 코 안에 침투해 나타나는 급성 비염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등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을 단순 감기로 여겨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레르기 비염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 비염, 기타 호흡기 질환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이염, 축농증 등의 합병증까지 야기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감기는 원인 및 임상적 양상부터 차이를 보인다. 알레르기 비염 유발 요인은 꽃가루, 집먼지 진드기 등의 특정 항원이다. 반면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발병한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과 다르게 몸살, 열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감기는 안증을 도모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약물 및 주사 치료를 시행할 경우 1~2주 내 호전 기미를 보인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항원 회피 요법을 해도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알레르기 비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 방법으로 다중 알레르기 항원 검사(MAST), 유니캡(UniCAP)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

진단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 항히스타민제, 비강 내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특정 항원에 대한 회피 요법도 중요한 만큼 환자의 치료 협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만약 비염과 더불어 비강경막출혈, 축농증, 코막힘이 동반된다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아주엘이비인후과 김병철 원장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19일 (목) 음력: 4월 1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행상은 저녁놀이 산천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해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부나 조연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거나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해 나아가면 산에 산이 겹쳐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치해야 할 때는 정치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말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물과 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기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장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იდ,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전망하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2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